조영래 <전태일평전>

<전태일평전>은 전태일의 어머니로부터 전해받은 *전태일의 수기*를 저자인 인권 변호사 조영래가 정리하고 집필한 책이다. 우리가 *전태일의 수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를 지시한다.

1부 어린 시절

어린 시절 전태일은 가난과 고된 가정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일을 하러 가출한다. 가출한 삶은 더욱 가난하고 험난했다.

▼ 41

승무원 2명이 기록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닌가. 가슴은 참새처럼 두근거리면서 어서 빨리 승무원이 통과하기만 기다렸다.

내 바로 위에 앉은 할머니는 치마를 밑으로 내려서 나를 감추어주셨다. 나는 할머니의 말 없는 인간애에 어머니에게만 맛볼 수 있었던 감정을 느꼈고, 나도 모르게 두 눈엔 뜨거운 눈물이 야윈 볼을 적셨다.

▼ 39-40

철조망, 그것은 법이다. 질서이다. 규범이며 도덕이며 훈계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억압이다. 겹겹이 철조망을 둘러치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철조망을 넘어서려는 사람을 짓밟고 그 쓰러진 얼굴 위에다 침을 뱉는다. 쓰러져 짓밟힌 인간의 이지러진 얼굴 위로 고통스런 죄의식의 올가미가 덮어씌워진다.

철조망을 넘는 과정은 무뢰한으로 전락하는 과정, 법과 질서의 테두리 밖으로 고독하게 추방되는 과정, 양심과 인륜을 박탈당한 비인간으로 밀려나는 과정이다.

그것은 동시에 인간으로 회복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것은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그 어떤 법률과 질서와 도덕과 훈계로도 가로막을 수 없는 자신의 삶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철조망 앞에 결박당하여 의식이 마비되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생명력, 인간 의지의 표현이다.**

전태일은 가출을 끝내고 청옥으로 돌아온다. 청옥에서 전태일은 야간학교에서 공부한다. 청옥에서 보낸 1년도 채 못 되는 학창시절, 그것을 뒷날 전태일은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하였던 시절"이라고 회상했다.

▼ 51-53

맑은 가을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깊었으며, 그늘과 그늘로 옮겨다니면서 자라온 나는 한없는 행복감과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서로간의 기쁨과 사랑을 마음껏 느꼈습니다. 내일이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나는 내가 살아 있는 인간임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고 진심으로 조물주에게 감사했습니다.

코피가 대야를 물들이는 고된 노동과 배움의 나날뿐이었다. 그러나 전태일은 그것만으로 그가 "살아 있는 인간임을"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그 고된 나날 속에서 벗들과 어울리며 서로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던 기쁨, 그 '인간만의 특권'을 마음껏 누릴 여유를 참으로 오랜만에 가질 수 있었던 전태일의 청옥 시절.**

나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감정에는 약한 편입니다. 조금만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 마음이 언짢아 그날 기분은 우울한 편입니다. 내 자신이 너무 그런 환경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즐거운 대화를 나눌 때 문득 내가 아직도 서울에서 방황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겠나를 생각하였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하면서 어떻게든지 공부를 끝까지 해서 지금도 서울에서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을, 그리고 거리에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5원의 동정을 받고 양심까지도 다 내어보여야 하는, 언제든지 밑지는 생명을 연장하려고 애쓰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리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다.

그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가 그늘과 그늘로 옮겨다니면서 자라왔다는 사실을, 그와 마찬가지로 숱한 그의 이웃들이 아직도 그늘과 그늘 사이에서 절망의 나날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간의 사랑'이 그에게 가져다준 기쁨은, 곧 그로 인한 슬픔과도 통하는 것이었다. 중생이 병들었으므로 그도 여전히 병들어 있었다.**

전태일이 그 지독한 가난과 서러움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타락하지 않고 당당하고 정의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험난한 생활에서 비롯된 인간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에서 비롯된 사회개혁의 높은 꿈과 사명감 때문이었다.**

▼ 55-56

어린 나이에 벌써 무겁고 냉혹한 사회현실의 짐에 짓눌려 허덕이며 멀고 지루한 고난의 길을 지나와야 했던 그는, **어떻게든 공부를 계속함으로써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숨 막힐 듯한 길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내 한 몸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에만 급급하였던 생활, 고통 받는 밑바닥 인생들과도 서로 사랑할 수 없었고, 한 기차에 같이 무임승차한 거지아이를 보고도 반갑기는커녕 가슴이 덜컹 내려앉아야 했고, 역 벤치에서 초라한 시골아낙이 떨어뜨린 돈을 주워가짐으로써 그 여자에게 상처를 입혀야만 했던, **그러한 지난날의 생활 속에서 그는 도저히 그 어떤 희망도 보람도 느낄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아버지가 야간학교를 못 다니게 하고, 어머니가 돈을 벌러 서울로 떠난다. 전태일은 반복된 불행을 벗고 어머니를 찾으러 여동생을 데리고 서울로 떠난다. 구두닦이 일 등 거리를 떠돌며 온갖 노동을 하며 불평등한 사회를 마주한다.

▼ 62

구두닦이에도 '구역'이란 것이 정해져 있다. 손님이 많은 다방이라든가 도심지 고층건물 근처의 구두닦이 구역은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에 거래된다. 비록 나라의 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는 아니지만, **그것은 법보다도 더욱 가깝고 확실한 힘에 의하여 지켜지는 것이다.**

▼ 81

밤 깊은 때, 아마도 열한시가 좀 지나, 종종걸음으로 서울역 근처의 지하도들을 지나갈 때면, 우리는 밤이슬을 피하여 지하도 벽에 기대앉아 졸고 있는 사람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된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들의 야윈 얼굴에서, 비탄으로 깊게 팬 그들의 주름살에서, 실의에 잠겨 빛을 잃은 지오래인 그들의 힘없는 눈매 속에서, **자신들을 인간쓰레기로 만들고 있는 '부한 환경'에 대한 깊은 분노가 타오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는 없는 것일까?**

▼ 77-78

그에게 한 인간으로서의 설 자리를 허용 하지 않는 저 완강한 타인의 성채. 그를 끝끝내 거부하는 저 부유한 자, 강한 자가 지배하는 질서. 그것을 두고두고 저주하기 위해서는, 그리하여 끝끝내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그것을 부를 이름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부한 환경'이라고 이름 지었다. **열여섯 살 나이에 이미 전태일은 서울이라는 '부유한 환경'이 그와 그의 여동생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았다.** 냉혹한 현실은 남매간의 정도 갈라놓았다. 그는 어린 동생을 버렸다. 버리면서 "피를 말리는 듯한 불안감과 죄책감"에 떨었다. 그러나 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얼마나 많은 밤을 그는 저 저주받은 현실과 자신의 버려진 목숨을 끌어안고 피투성이의 고뇌로 지새웠던가? 이제는 인륜마저도 잃어버린 죄인-아버지에게 반항하여 집을 뛰쳐나왔고, 어머니를 괴롭혔으며, 작은아버지의 시계를 훔쳤고, 차마 떨어지지 않으려는 어린 동생을 차디찬 서울의 길바닥에다 내던져버린, 그러고도 구차 한 목숨을 이어가려고 남의 동정을 구하여 구걸을 하는, 그 자신의 저주받은 목숨. 때로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도록 증오했다.

그러나 전태일은 이를 악물었다. **이 저주받은 현실 앞에 결코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나를 거부하는 '부한 환경'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만은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다시 걷지 않아도 되도록 보살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밑지는 생명을 연장하려고 애쓰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겠다던 청옥 시절의 꿈을 기어이 이루어야만 했다. 그것만이, 오직 그것만이 지금껏 살아온 쓰라린 세월에 대한 보상이었고, 악착같이 자신을 거부해온 '부한 환경'에 대하여 자기 쪽에서 되돌려주어야 할 정당한 대답이었다.**

▼ 82-83

"우산 하나 얼마니?" "예 35원입니다." "왜 35원이야, 30원 주고 샀는데." "아네요, 35원이면 본전밖에 안 됩니다." "밑지기는 뭐가 밑져, 얘들은 왜 곧 죽는 소리야? 기분 잡치게. 아니 이거 헌 우산 아니야! 자루가 이게 뭐야. 곰팡이가 슬고, 이거 헌 거로구나!" "아-, 아닙니다. 천만에요, 이건 분명히 제가 이제 금방 받아온 거야요." "변명은 말아! 너희들이 그런 지저분한 변명을 하니까 밤낮 그 모양 그 꼴이야. 이 거지 같은 자식아!"

그래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거지예요. 댁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도도한 집에서 태어났고요. 내내 도도하십시오.

전태일은 그가 '밤낮 그 모양 그 꼴'인 것이 그가 나쁜 놈이기 때문이라고 뒤집어씌우고 경멸하는 '부한 환경' 속의 사람들에 대하여 대들고 있다. **"왜 그것이 내 책임이냐?", "태어날 때부터 거지가 따로 있고 도도한 사람이 따로 있느냐?"라고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서 그를 인간적으로 짓밟는 도도한 인간들을 향하여 "내내 도도하라!"고 퍼붓고 있는 것이다. "내내 도도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내 그렇게 도도할 수 있는 지 두고 보자"는 뜻이 아닐까?

전태일의 정신적인 성장과정 가운데에서 이 당시에 이미 자신을 거부하는 '부한 환경'의 현실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 현실과 싸워 이기려는 분명한 의지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가 남들처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88

날씨가 추운 밤이면 가마니 위에서 어머니는 치마를 벗어 잠자는 아들을 덮어주고, 아들은 또 상의를 벗어 어머니를 덮어 주고 하면서 잠을 잤다.

2부 평화시장의 괴로움 속으로

전태일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좋아하던 공부를 다시 하고 싶은 마음에 평화시장에서 '시다' 일을 시작한다.

▼ 103-104

태일은 오랫동안의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임금노동자 생활을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구두닦이, 껌팔이, 신문팔이, 양아치, 창녀 따위의 일종의 떠돌이 실직 청소년들이 임금노동자로 취직을 할 때, 그것은 그들의 인생에 하나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그들은 이 변화가 다소 부자유스럽고 고되기는 하지만 안정된 직장에서 기술을 배워 일생의 생계를 확보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어디에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이 있는가? **많은 거리의 천사들은 그나마 그들에게 좁은 문을 벌리고 있는 숱한 공장과 작업장들이 실은 그들의 목숨을 좀먹는 노동지옥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그들은 결국 형무소냐 노동지옥이냐, 이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하기 위하여 고뇌하지 않으면 안 된다.**

▼ 105-106

뼈가 휘는 고된 나날이었지만, 기술을 배운다는 희망과 서울의 지붕 아래서 이 불효자식의 고집 때문에 고생하실 어머니 생각과 배가고파 울고 있을지도 모르는 막내동생을 생각할 땐 나의 피곤함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첫 출근을 하는 날 그의 가슴은 새로운 희망과 꿈으로 부풀었다. 지금 당장 생활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구두닦이 때보다 더 궁핍한 생활, 더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할 형편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며 **기술을 배울 때에는 새로운 살길이 열리리라는 희망, 그것이 그의 어린 어깨를 들썩이게 했다.**

전태일은 아직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할 여유를 가질 수가 없었다. 하물며 그것을 시정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이 당시 무엇보다도 그의 머리에 꽉 들어차 있었던 것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빨리 기술을 배워 셋방 한 칸이라도 얻을 수 있을 만한 돈을 장만하여 식모살이하는 어머니와 길바닥에 버렸던 막내 순덕이를 데려오는 일이었다. 그리고도 그에게 꿈이 있었다면 그것은 생활의 여유를 가지고 나서 고학으로 대학교까지 마치겠다는 절실한 집념이었다.

평화시장의 노동자는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노동한다.

▼ 101

평화시장 일대에 수없이 밀집되어 있는 이 영세기업체들은 일찍부터 '평화시장주식회사'라는 그들의 동맹기구를 통하여 알게 모르게 일종의 저임금 기업연합을 형성하였다. 그들은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공동전선을 펴고 있는 반면에, 수많은 소규모 작업장에 분산되어 있으면서 거의 **숨 돌릴 틈도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하여 단결하고 쟁의를 일으킨다는 것은 전태일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 111-113

'웃고 뛰놀자 그리고 푸른 하늘을 쳐다보며 오늘을 생각하고 내일에의 꿈을 키우자' 남산 어린이회관 앞 비석에 새겨진 이 구호는 평화시장의 어린 여공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꿈같은 얘기이다.

평화시장의 여공들에게 내일은 없다. 하루하루 모진 목숨을 이어나가야 하는 숨막히는 노동의 질곡만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결국 스스로의 젊음과 소망과 건강과 생명을 그날그날 갉아먹으며 살아야만 하는 피팔이 인생들이다.**

▼ 115-116

미싱사, 미싱보조, 견습공의 경우 대부분이 정액 월급제가 아니라 작업량에 따라(예컨대 1매당 얼마라는 식 으로) 지불되는 도급제'이다. 따라서 견습공과 미싱보조의 임금은 업주가 직접 지불하지 않고 오야미싱사가 지불하게 되는데, 이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직불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에 의하여 견습공과 보조공의 저임금이 합리화되고 있다.

평화시장 일대의 이러한 도급제도는 업주에게는 유리하게, 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작업량에 따라 수입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생활고에 쫓기는 임시공들은 **노동시간 단축이나 임금인상 투쟁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라도 더 제품량을 늘려서 수입을 올리는 데만 신경을 쓰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몸이 가루가 되든 말든 일감이 많아져서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오히려 환영하는 경향까지 있다.**

▼ 118

나쁜 작업환경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앞에서도 설명한 다락방이었다. **이것은 업주들이 좁은 작업장의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만든 것인데, 바로 이 사실이야말로 한국의 저임금경제가 딛고 선 냉혹한 인간 경시, 인간 비료화, 저 참혹한 노동지옥을 상징하고도 남는다.**

노동의 대가를 인정하지 않는 처참한 현실에 전태일은 억울함을 느낀다. 가족을 넘어서 노동자를 위해 저항하는 게 옳은 일임을 깨닫는다.

▼ 122-124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미싱사들의 다 같은 불만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1매당 얼마를 준다는 확고한 결정을 짓지 아니하고, 대목 일이 끝난 다음에야 1매당 얼마를 지불한다는 것을 주인이 재단사와 적당히 타협해서 주는 것이다. 언제나 이 모양이기 때문에 일이 바빠 직공들이 매수를 많이 올려도 겨우 평균 월급보다 조금 나은 월급을 받을 뿐이다. 나는 이런 계통에서 미싱사로서는 처음 당하는 일이었지만 너무 억울했다. 아무리 열심히 밤잠 못 자고 많은 양의 바지를 만들어야, 피땀 흘린 대가를 못 찾았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겪는 자신의 고통, 그리고 숱한 동료 노동자들의 참상을 보면서도 **그는 아직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전태일의 경우에도 평화시장 생활이 길어지면서 어느샌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라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그의 수기에서 읽을 수 있다. 이것이 전태일이 평화시장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한 최초의 기록이다. 이때가 1966년 늦가을, 그가 평화시장에 발을 디딘 지 2년 남짓한 세월이 흐른 때였다.

▼ 124-130

나는 재단사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나도 어서 빨리 재단사가 되어서, 노임을 결정하는 협의를 할 때는 약한 직공들 편에 서서 정당한 타협을 하리라고 결심했다. 아주 큰 공장을 제외하고는 공장장이 따로 없는 공장은 재단사가 공장장까지 겸하여 직공들의 절대적인 문제인 입사와 해고의 문제까지 마음대로 관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사는 주인에게도 절대적인 존재이고, 우리 직공들의 건의 사항도 재단사를 통해서 주인에게 건의되며, 재단사는 절대적으로 양심껏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인 것이다. 그렇지만 주인에게 월급을 받는 약점 때문에 자연히 주인에게 편파적이었다.

그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억울함을 없애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데 있다. 그것은 미싱사의 생활을 그만두고 재단사가 되는 길을 택한 것이었다. 업주와 재단사의 유착 관계가 생기게 되며 재단사가 주인에게 '편파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 전태일이 분개하였다.

그는 자신의 인격적인 의무가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부모를 편히 모시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매일매일 참혹한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이웃들, 평화시장의 어린 여공들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2년이 넘도록 그는 차마 눈뜨 고 볼 수 없는 어린 여공들의 참상을 접하면서 안타까움과 울분 속에 살아왔다. 이 고통의 기간을 거쳐 **눈앞에 보이는 불의한 기업주의 횡포를 명료하게 목격했을 때, 그는 가족들에게 돈 몇 푼을 다달이 더 보려고 고분고분 죽어지내는 것보다는 이 억압과 불의에 저항하여 무언가 싸움에 나서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깨달았다.**

🧐 재단사

- 주인-대리인 관계 연관지어 살펴볼 수 있다
  - 지주-소작농
  - 연예인-매니저
    - 오히려 대리인인 매니저가 연예인보다 많은 정보량을 갖게 돼 → 연예인은 매니저 없이 일 불가능하게 돼

당시 그의 눈에 절대 권력자로 보였던 재단사가 돼서 여공들의 처지를 개선시켜 주겠다고 마음먹는다. 그렇게 몇 년을 노력했지만 돌아온 것은 여공이 피를 토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무력감과 해고였다.

▼ 132

때때로 그는 점심을 굶고 있는 시다들에게 버스값을 털어서 1원 짜리 풀빵을 사주고 청계천 6가부터 도봉산까지 두세 시간을 걸어가기도 했다. 밤 한 시나 두 시가 지나 집에 돌아오는 일이 버릇처럼 되었는데, 이것은 그 뒤 그가 죽을 때까지 3, 4년 동안 계속되었다.

▼ 134

인간을 물질화하는 세대, 인간의 개성과 참 인간적 본능의 충족을 무시당하고 희망의 가지를 잘린 채, 존재하기 위한 대가로 물질적 가치로 전락한 인간상을 증오한다.

▼ 158

그저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만 하는 종업원이 업주에게는 가장 반가운 사람이다. 그런데 이놈의 재단사는 어찌된 셈인지 아무 때고 시다가 좀 아프기만 하면 약방에 데려간 다고 자리를 비우기 일쑤고, 애들에게 밤일 좀 시키려고 하면 번번 이 낯을 찌푸리고 하니. 업주는 이때다 하고 그를 내쫓았다.

약한 직공들을 돕고, 불쌍한 '시다'들에게 잘해주자고 마음먹 었던 것이 아닌가? 재단사가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온정을 베풀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었던 것이 아닌가? **주인이 자신에게 차마 그것마저도 못하게 막으리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다. 여기에 생각이 미쳤을 때 그는 자신이 이제껏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3부 바보회의 조직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알게 된 전태일은 그간의 노동이 법적으로도 부당함을 깨닫는다.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던 자신과 평화시장 노동자는 바보였다.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꿈꾸며 바보들의 모임인 바보회를 만든다.

▼ 157

밤마다 집에 돌아오면 저녁 먹을 생각도 않고 아버지가 알고 있는 노동운동에 관한 모든 것을 묻기 시작했 다. 그가 생전 처음으로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 게 된 것도 이때였다.

그가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며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또 노동자들의 조직인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모두 아버지의 체험담을 통해서였다.

▼ 165

이제껏 ‘이렇게 좋은’ 규정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직장에서는 **주인이 맘대로 하는 것인 줄만 알고 찍소리 한번 못하고 속아 살아온 자신이 정말 너무나도 ‘바보’였다. 또 나라의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근로조건을 쟁취하지 못하고 죽은 듯이 혹사당하고만 있는 평화시장 일대의 모든 노동자들이 다 ‘바보’라고 생각되었다. 그는 그 ‘바보’들의 모임인 바보회를 만든다.**

▼ 184

평화시장 일대의 3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대로 준수되도록 투쟁하는 것이 당분간의 목표이다.

▼ 174

다만 문제는 회원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우리의 미약한 힘으로 어떻게 근로조건 개선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품고 있었고, 이 의문을 아무도 설득력 있게 풀어줄 수 없었다는 데 있었다.

▼ 175-178

재단사 모임을 시작하면서 그는 나이가 든 선배 재단사들을 찾아다니며 협조를 청하였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그건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이다. 뭘 안다고 너희가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이려 하느냐?”고 막으면서 노동운동을 하겠다고 설치는 놈은 ‘바보’라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좋다. 우리가 한번 바보답게 되든 안 되든 들이박아나 보고 죽자.**

노동자의 경우는 기업주가 필요로 하는 일 잘하고 말 잘 듣고 부지런한 사람이 바로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지배하고 명령하는 강자의 이익에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강자의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다.

전태일은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넣어 현실을 변화시키겠다고 작정한다. 결국 고용주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서까지 힘들게 얻은 근로조건 앙케이트지 30부를 들고 근로감독관을 찾아간 전태일은 외면당한다.

▼ 190

바보회가 창립된 지 얼마 후 그는 어머니에게 빚을 내어 책 한 권을 사달라고 졸랐다. 어느 노동법 학자가 쓴 근로기준법 해설서였다.

몇 페이지만 넘겨도 전문적인 법학상의 개념과 법률용어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니 답답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태일은 하룻밤을 꼬박 새워 한 장밖에 못 보는 한이 있더라도 책을 놓지 않았다. 이때부터 그는 "대학생 친구가 하나 있었으면 원이 없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게 되었다.

▼ 197

태일은 어느 바짓집(바지 공장)에서 닷새 동안 일을 해주고 받은 임금으로 노동실태 조사용 설문지 300매를 인쇄했다. 바보회 회원 서너 명이 그것을 평화시장 노동자들에게 돌렸다. 설문지를 모두 모아서 결과를 분석 집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감독권 행사를 요구하기 위하여 시청 근로감독관실로 찾아갔다.

도대체 평화시장 의 참혹한 얘기를 다 듣고도 충격을 받는 빛도 없었고 최소한의 관심 표시도 없었다.

나는 기업주들만이 아니라 근로감독관, 노동청, 아니 그 이상까지도 상대로 하여 싸워야 한단 말인가? 저 악마와 같은 현실의 벽은 도대체 얼마나 두꺼우며 도대체 어디까지 뻗어 있는 것인가?

그는 자학, 자학, 자학을 거듭했다. 그리고 그는 거듭 거듭 다시 박차고 일어섰다. 인간과 사회의 현실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가 이 과정을 통하여 마치 봄비를 맞은 초목처럼 그의 머릿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보다 뿌리 깊은 분노가, 보다 뜨거운 연민이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올랐다.

4부 전태일 사상

전태일의 사상은 스스로의 인간적인 체험에서 비롯한 사회에 가득찬 위선을 벗기는 투쟁이었다.

▼ 223

전태일 사상은 각성된 밑바닥 인간의 사상이다. 그것은 오랜 침묵에서 깨어나서 이제껏 현실이 자신에게 강요해왔던 가치관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오직 스스로의 인간적인 체험에 의거하여 그 자신의 가슴으로 느끼고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자신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 주체적인 인간의 사상이었다.**

그것은 자기비하에서 자존으로, 비굴에서 긍지로, 공포와 위축에서 분노와 용기로, 의존과 자학에서 자주와 해방으로, 체념과 침묵에서 비판과 투쟁으로 전환하여가는 사상, 노예에서 인간으로 거듭나는 민중의 사상이다.

▼ 230

기업주들의 비위를 폭로하기만 하면 근로감독관이니 노동청이니 혹은 사회의 다른 기구들이나 힘들이 그것을 시정시켜줄 것으로 믿었던 착각이 그의 지금까지의 투쟁을 좌절시키고 바보회를 해체

상태로 몰아넣게 한 근본원인이 아니었을까? **정작 싸워야 할 대상은 억압하는 사회의 전체적인 구조와 힘이 아니었을까? 전태일이 그의 자서전을 쓰려고 했던 것은 이러한 억압적 구조와 그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적나라하게 폭로 고발하고, 그럼으로써 사회에 가득찬 위선을 발가벗기려는 하나의 투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

▼ 231

노동절 행사 때마다 "이 나라 경제성장은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산업전사들의 헌신 덕분"이니 무어니 입에 발린 소리를 떠들어대면서도, 정작은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복지후생 문제가 뒤로 미루어져야 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뻔뻔스러움에 그는 심한 혐오를 느꼈다.

전태일은 동료 인간들을 위해 현실의 벽에 맞선다.

▼ 232

어떠한 인간적 문제이든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가져야 할 인간적인 과제이다.

모든 인간은 서로의 동등한 인간적 권리를 존중하고 서로의 인간적 요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173, 259-260

거액의 돈을 마련하여 평화시장 안에 모범적인 업체를 만들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노동자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면서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다른 모든 업체들이 그 뒤를 따르도록 해보겠다는 생각이었다.

자기의 눈알 하나를 빼서 실명자에게 기증함으로써 그 사실이 신문에 보도가 되면 그 신문을 본 독지가가 그의 사람됨을 믿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이었다.

▼ 266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5부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은 바보회에 이어 노동 투쟁을 위해 삼동회를 조직한다. 기업주 측의 약속을 믿지 말 것과 노동자들의 투쟁 자세가 얼마나 확고하느냐가 결정적이라는 것을 각성한다.

▼ 281-282, 285

바보회의 활동이 실제로는 기업주나 노동 당국에 '진정'하고 '호소'하는 데에 그쳤던 것에 반하여, 삼동회는 평화시장의 불법적이며 비인간적인 노동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것을 하나의 발판으로 하여 공동으로 '투쟁'할 것을 활동지침으로 하였다.

삼동친목회의 첫 사업으로 전태일의 동지들은 평화시장 일대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설문지를 돌렸다.

▼ 294-297

노동청에 진술서를 낸 그 다음날, 시내 각 석간신문에 평화시장의 참상에 관한 보도가 실렸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기적이 마침내 일어난 것이다.

"우리도 인간인가보다. 우리 문제도 신문에 날 때가 있나보다." **이러한 자각이 노동자들의 잠자던 가슴을 뒤흔들며 평화시장 일대에 퍼져나갔다. 많은 노동자들이 삼동회 회원들을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협력하며 싸울 것을 다짐했다.**

▼ 298

평화시장의 열세 살짜리 여공들이 하루 몇 시간을 노동해야 하는가를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신문에 안 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신문 역시 강한 자, 부유한 자의 속성에 비틀거리고 있다. 신문사의 주인은 대재벌급의 기업가. 그들이 밑바닥 인생들의 문제에 기본적으로 관심을 표시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자기의 신문경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치권력의 비위를 일부러 거스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302-304

1971년 봄의 대통령 선거를 7개월 남짓 앞두고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가 국정 전반에 걸쳐 비판의 소리를 높여가고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정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여론을 면밀히 살피고 있던 때였다. 만약 노동자들의 참상이 매스컴을 통하여 계속 보도된다면, 그것은 대통령선거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에 주무관청인 노동청은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될 것이 틀림없는 형편이었다.

노동총 근로기준국장으로 있던 임정삼이라는 사람이 "일주일 이내로 다 개선 시켜주겠다"라고 하였다.

근로감독관의 대답은 진정 내용을 실현시키려고 노력을 해보았으나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 305

데모라는 것은 '보여준다, 과시한다'를 뜻하는 영어 '데몬스트레이션(demonstration)'의 준말이다. 이것을 우리말로는 시위라고 번역 하는데, 이 시위라는 말이 오히려 데모의 본뜻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즉, **위세, 위력을 보여줌으로써 겁을 준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떨게 한다, 그리함으로 이쪽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도록 강박한다는 것이 데모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데모라는 것은 진정이니 호소니 청원이니 건의니 하는 따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제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데모가 아니라, "이런데도 네가 말을 안 듣고 배기겠느냐?"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데모이다.

▼ 307

평소에 쓰레기 취급을 당하던 밑바닥 인생들도 선거철만 되면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의 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람대접을 받고 활개를 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그동안 바보인 척 죽어지내던 서민들이 용기를 내어 제가끔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투쟁을 전개하는데, 이에 대해 그렇게 심한 제재가 오지는 않는다. 이것이 바로 1971년도까지의 한국의 정치계 절 풍경도였다(민주주의 혹은 정치적 자유라는 것도 이렇듯 민중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노동운동이 필연적으로 정치운동의 성격을 띠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태일이 자기 혼자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체 노동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투쟁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했다. 고민의 결과는 자기 자신을 육탄으로 사용한 '인간 선언', 즉 분신이었다.

▼ 314-315

전태일에게는 참으로 바라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나라였다. 약한 자도, 강한 자도,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귀한 자도, 천한 자도, 모든 구별이 없는 평등한 인간들의 '서로간의 사랑'이라는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세상, '덩어리가 없기 때문에 부스러기가 존재할 수 없는' 사회, '서로가 다 용해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그는 바랐다. 자본가들을 살찌우기 위한 이윤의 도구로서 기계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게 되기를, 하나의 존엄한 인간으로서 인정받게 되기를, 그리하여 괴로운 노동이 즐거운 노동으로 바뀌는 그날이 오기를 그는 열망하였다.

▼ 320-322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한반도는 강대국 냉전의 제물로 떨어진 세계 사상 유례가 드문 치열한 이데올로기의 격전장이었다. 한반도의 남쪽에는 친미파인 우익정부가 자리 잡고 좌익세력을 철저하게 말살해버렸다. 이때부터 한국 노동운동의 오랜 침묵이 시작되었다. **"노동운동이 란 곧 좌익운동"이라는 역사적인 낙인이 찍혔고, 노동운동이니 노동이니 하는 '노'자만 발음해도 사람들은 '빨갱이'로 몰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대중의 무관심과 무기력으로 보아, 그는 생명을 건 투쟁이 아니고는 이 철벽을 돌파할 수 없으리라고 판단했음이 틀림 없다. 그의 죽음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기보다 당시의 암울한 시대상황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325

근로기준법을 화형에 처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이 있어서 노동자들이 살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참상은 더욱더 숨겨졌다.

▼ 330-331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책을 가슴에 품고 내려왔다. 갑자기 전태일의 옷 위로 불길이 확 치솟았다. 불길은 순식간에 전태일의 전신을 휩쌌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그는 몇 마디의 구호를 짐승의 소리처럼 외치다가 그 자리에 쓰러졌다.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소수의 재단사들이 비로소 울부짖으며 집회를 시작한다. 전태일의 분신이 망설이던 그들을 움직였다.

▼ 332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재단사들과 그밖에도 그들이 하는 일을 알고 있었던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달려왔다. 그들만은 이 죽음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데모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경찰의 곤봉 아래 머리가 깨어지고 구둣발에 짓 밟히면서 경찰서로 개처럼 끌려갔다.

▼ 336

"어머니, 내가 못다 이룬 일 어머니가 꼭 이루어주십시오" 하였다. 못다 이룬 일 어머니가 꼭 이루어달라는 아들의 이 한마디는 어머니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어 박혔다.

입술을 깨물어 그 말을 되새 기면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약속했다. "그래, 아무 걱정 마라.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기어코 내가 너의 뜻을 이룰게."

▼ 337-338

의사의 말로는 15,000원짜리 주사 두 대만 맞으면 우선 화기는 가시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훗날 집을 팔아서라도 갚을 터이니 그 주사를 맞게 해달라고 의사에게 매달렸다. 의사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그러면 근로감독관에게 가서 보증을 받아오라고 했다.

그는 "내가 무엇 때문에 보증을 서요?" 하고 퉁명스레 내뱉고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

▼ 339

한동안 혼수상태에 빠진 듯하더니 눈을 떠서 힘없는 소리로 "배가 고프다"라고 하였다. 평생을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보지 못했던 그였다. 이 한마디, 그의 스물두 해의 고통을 말해주는 이 한마디가 그의 마지막 말이 었다.

🧐 청계천

1. 평화시장 전태일 동상
2. 존치 교각
    - 개발주의, 신개발주의 엮어서 살펴볼 수 있다. → 신개발주의는 실제로 반생태적이고, 반역사적이다.
    - 청계천의 '존치 교각'은 과거 고가도로 철거한 역사의 흔적이다.
        - 과거 고가도로는 차별의 결과물이다. ← 걷는 대중은 개돼지 vs. 차 타는 부유층 → 도보는 아래로, 차도는 위로 계층 분리
        - 고가도로 철거는 평등을 보여준다. 이제 사람도 차도 서로 양보하고 멈춰선다,
- 주인-대리인 관계 연관지어 살펴볼 수 있다
    - 지주-소작농
    - 연예인-매니저
        - 오히려 대리인인 매니저가 연예인보다 많은 정보량을 갖게 돼 → 연예인은 매니저 없이 일 불가능하게 돼